

## 우리금융 경영진, 자사주 1만1782주 매입

손태승 회장, 추가매수로 7만3127주

우리금융그룹은 최근 손태승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자사주 총 1만 1782주를 매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은 5000주를 매입해 총 7만 3127주의 자사주를 보유하게 됐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우리금융 경영진의 이번 자사주 매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주목된다는 평가다.

한편 우리금융은 지난해 미중 무역 분쟁 지속 및 금리하락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경상기준 사상 최대실적 달성고 더불어 성공적인 비은행 인수 합병(M&A) 등을 통해 지주 설립 원년

그룹체제를 공고히 했다.

또 지난해 결산 배당금으로 전년 대비 50원 증가한 1주당 700원의 역대 최고 수준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 이는 이익을 주주에게 환원하겠다는 강화된 주주친화 정책의 결과라는 설명이다.

/나유리 기자

## 하나저축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생활자금대출

하나저축은행이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행복론 119'를 출시했다. '행복론 119'의 가입 대상은 만 20세 이상 개인으로 한도는 최고 500만원이다. 기존 신용대출 상품보다 연 2.0% 포인트 인하된 금리 혜택을 제공하며 총 100억원 한도로 6월 30일까지 한시

적으로 제공한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5년간 분할상환이 가능하며 최장 12개월까지 거치식 상환도 가능하다.

'행복론 119'는 하나저축은행 홈페이지와 신용대출 전용 상담센터를 통해 비대면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나유리 기자 yul115@

## IBK기업銀 충주연수원 코로나 치료센터로 제공

입소 인원 179명, 의료진 70여명

IBK기업은행이 임직원 교육시설인 충주연수원을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업은행의 연수원은 대구·경북 지역의 치료시설 부족으로 자가 격리 중인 경증 환자 치료에 사용된다. 입소 인원은 179명이며, 70여명의 의료진과 행정인력이 상주한다.

250여실 규모의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는 IBK충주연수원은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에 위치해있다.



기업은행 충주연수원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기업은행 관계자는 "국책은행으로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생활치료센터 지원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국가적 위기 극복과 고통 분담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 스타트업 육성 'NH디지털 챌린지 플러스'

NH디지털혁신캠퍼스 입주지원  
농협 계열사와 협업기회 제공

NH농협은행은 다음달 1일까지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NH디지털 챌린지 플러스(Challenge+)' 3기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NH디지털 챌린지 플러스는 창업 초기 스타트업이 사업모델을 구체화하도록 초기자본 투자부터 홍보·법률·재무 분야 등의 컨설팅과 후속 투자기회까지 제공하는 기업 성장단계별 액셀러레이팅 전문 프로그램이다. 기본 6개월의 프로그램이며, 향후 사업 성과에 따라 연장도 가능하다.

이번 NH디지털 챌린지 플러스 3기는 금융(Fin-Tech), 부동산·주거(Prop-Tech), 농업, 임업, 식품업 등 다양



한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혁신을 꾀하는 명확한 사업 모델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혁신성, 사업성, 시너지를 평가해 선정한다.

NH디지털 챌린지 플러스 3기에 선정된 기업에는 ▲NH디지털혁신캠퍼스 내 업무공간 ▲역량강화 전문교육 ▲1대 1 멘토링 ▲오피스아워 ▲데모데이 ▲네트워킹 행사 등이 제공된다.

/안상미 기자 smahn1@

## 우리금융, IMM에 푸르덴셜 인수금융 제공 배경은?

# 대주주 사모펀드와 시너지 롯데카드 인수모델 데자뷔

(IMM)

인수금융 규모, 지분인수 비중 미정  
푸본생명, 우리와 삼각동맹 관측  
KB금융, '적정한 가격' 강조

푸르덴셜생명 인수전이 KB금융지주, MBK파트너스, 우리금융-IMM 3파전으로 흐르고 있다.

우리금융지주가 푸르덴셜생명 인수에 참여한 사모펀드(PEF) IMM프라이빗에쿼티에 인수금융을 제공키로 했기 때문이다. 인수금융은 인수·합병(M&A)에 필요한 자금을 직접 대출해주거나 금융을 주선하는 업무를 말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IMM PE에 인수금융을 주선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협상 중으로 인수금융 규모와 지분인수 비중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9일로 예정된 푸르덴셜생명 본입찰에는 KB금융지주, MBK파트너스, 우리금융-IMM PE가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우리금융은 푸르덴셜생명 예비입찰 참여를 두고 고심하다 불참했다. 하지만 투자은행(IB)업계에서는 우리금융이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푸르덴셜생명 인수전에 참여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우리금융은 롯데카드 인수전 때도 MBK파트너스의 인수금융을 맡으면



우리은행 사옥 전경.

/우리은행

서 롯데카드 지분 20%를 사들인 전례가 있다. 당시 우리금융은 예비입찰에 참여하지 않다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본입찰에 등장한 바 있다.

당시 MBK는 롯데지주가 보유한 롯데카드 지분 79.83%를 1조3810억원에 인수했다. MBK와 우리은행은 각 60%와 20%의 지분을 나눠가졌고, 우리은행은 MBK에 7000억원 상당의 인수금융도 주선했다.

푸르덴셜생명 인수전은 KB금융, MBK파트너스의 2파전 양상이 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우리금융이 IMM PE와 손잡으면서 3파전 흐름으로 가는 모양새다.

우리금융의 참여로 KB금융도 긴장하고 나섰다. KB금융은 KB생명을 자

회사로 두고 있지만 자산 기준 업계 17위권에 그룹 내 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미만으로, 대형 생보사 인수·합병(M&A)에 관심을 보여 왔다.

윤종규 KB금융 회장은 지난해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양궁 게임이라고 하면 10발 중 남은 한 발을 확실하게 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며 "생명보험 분야를 더 보완해야 하는 것이 어떠한 여망이 있다"고 생보사 인수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기도 했다.

푸본생명이 누구와 손을 잡을지도 주목된다. 업계에서는 푸본생명-우리은행-IMM PE라는 삼각동맹 관측도 나오고 있다. 우리금융은 최근 과점주인 대만계 푸본금융그룹이 추천한 첨문약 푸본은행 회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키로 하면서다. 푸본생명, IMM PE는 우리금융의 지분을 보유한 과점주주이다.

변수는 가격이다. 현재 푸르덴셜생명의 매가가격은 2조원에서 3조원까지 점쳐지고 있다. 우리금융이 인수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푸르덴셜생명 매가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KB금융은 그동안 '적정한 가격'을 강조해온 만큼 가격이 너무 높아질 경우 무리한 인수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 5%대 저금리... 소상공인 돕는 금융상품

저축銀, 어려움 겪는 사업자 대상  
대출연장, 이자유예 등 지원사격  
자체적으로 피해지원 성금 기부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소상공인을 위해 저축은행이 다양한 금융지원을 내놓고 있다.

여러 저축은행 연합으로 5%대의 저금리 대출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며 저축은행 자체적으로는 피해지원 성금을 기부하고도 대출연장, 이자유예, 금리인하 등으로 지원사격에 나선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자산규모 상위 저축은행과 금융지주계열 저축은행이 서울신용보증재단의 특별출연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신규대출을 지원할 계획

이다.

대상은 서울 지역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한다. 서울시가 이차(조달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보전에 나서면 대출 금리가 최저 4%대로 떨어진다.

앞서 KB저축은행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특별출연으로 약 50억원 한도 내에서 신규대출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KB저축은행 외에도 상위 저축은행 3곳과 금융지주 저축은행 5곳이 각각 금을 출연한다는 계획이다. 총 지원규모는 600억원 정도로 알려져 있으나 아직 내부 논의 중이다.

대출은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타는 대한 대출과 사업 자금을 위한 신규대출이 있다. 등급 조건이

나 기존 대출 여부 등에 제약이 없다.

각 저축은행 업체별로도 대출연장, 이자유예, 금리인하 등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SBI저축은행은 개인고객에게는 만기연장, 원리금상환 및 채권 추심 유예, 연체이자 감면 등을 지원하며 또 기업고객에게는 만기연장, 한도증액, 금리우대 등을 실시한다. 수신 고객에 대해서는 금융수수료 면제, 만기 후 1개월간 약정이율 적용 등을 지원키로 했다.

KB저축은행도 코로나19로 피해를 겪고 있는 고객 중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고객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최대 6개월까지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유예하거나 만기 연장 혜택을 지원한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 신한은행 해외진출 기업 금융문제 돕는다

20개국 162개 네트워크 활용  
애로사항, 교민 불편사항 지원

신한은행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국가 간 이동 제약이 현실화됨에 따라 해외로 진출한 국내 기업에

위한 '해외 신속 지원팀'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해외 신속 지원팀은 신한은행 글로벌 네트워크 20개국의 해외 주재원 중심으로 구성된다. 본점 글로벌사업본부와 함께 해외 진출 국내 기업의 금융

애로사항은 물론 교민의 불편사항까지도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지원 사항으로는 자금결제 지연과 같은 금융문제 발생시 해결방안 상담 및 안내, 현지 출장 불가로 업무 제한시 신한은행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 지원, 기업과 교민을 위한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다양하다.

/안상미 기자